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매개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김종훈(Jonghoon Kim)¹⁾
양소영(Soyoung Yang)²⁾
성지현(Jihyun Sung)³⁾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887 subjects studied in this paper were mothers who have a first child, and were selected from a sample of the 2nd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conducted in 2009. Data was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o identify a structure and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identified via bootstrapping. Results indicated that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and absolu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The findings reveal the importance of reducing parenting stress, given its substantial impac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¹⁾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²⁾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³⁾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인재개발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Sung, Dep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Human Resource Development, Sungkyunkwan University, 53 Myeongnyun-dong 3-ga, Jongno-gu, Seoul, Korea. 110-745
E-mail : sungjh@skku.edu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Key Words : 후속출산계획(planning for second childbirth),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아버지 양육참여(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I. 서론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핵가족과 맞벌이 가족이 늘어남과 동시에 출산율이 한 가구당 1.23명(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출산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Yoo, 2012).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대응정책 1차 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2011년부터 2차 저출산 기본계획으로 일·가정 양립 및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은 보편적 가족 자녀양육지원에 초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Koh, 2012).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후속출산에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Chung, 2012; Lee, 2012; Shin, 2010; Song, Lee, & Kim, 2011).

후속출산은 첫 자녀 출산 이후의 부부 선택으로 이어지는 ‘출산 의도’라 할 수 있다(Park, 2012). 첫 자녀의 출산은 결혼한 부부들 사이의 자발적인 선택보다도 암묵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압력이 크다(Cho & Hyun, 1994; Park, 2012). 하지만 둘째 자녀의 출산, 즉 첫째아 이후 후속출산은 부모 개인의 가치와 양육경험에 따른 부부의 자발적인 선택의 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Lim, Lee, & Choi, 2011a).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주요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점에서(Yoo, 2012), 자발적인 선택의 폭이 좁은 첫째아 출산보다 저출산의 문제를 파악하고 경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부부의

‘출산 의도’를 엿볼 수 있는 후속출산계획은 중요한 요인이다.

후속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지니고 있는 부모는 자녀의 출산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한편,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K. Kim, Doh, S. Kim, & Rhee, 2010).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은 자녀에 대한 따뜻하고 민감한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사회·정서적으로 유능한 아동으로 성장하는 긍정적 성과(Gerber, 2003)로 나타나는 반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 개인 생활의 제한, 신체적 피로감 등의 여러 요인들은 높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Kwak & Kim, 2004; Sohn, 2012). 이러한 자녀 양육에 있어 부정적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후속출산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Lim, Lee, & Choi, 2011a; Lim, Lee, & Choi, 2011b).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고통으로 부모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녀 양육이 부모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때 경험들이 스트레스 수준으로 평가되어 부모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Abidin, 1990a; Abidin, 1992). 특히,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많은 몫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감과 일상적인 가사일 등은 어머니의 과중한 부모역할 수행으로 이어져 높은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난다(Kim & Kang, 2011).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의 스트레스 중 삶의 사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과도 관련이 있으며,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영아를 돌보는 것으로 먹고 잠자는 문제들, 울음, 질병 등과 같은 육아의 번거로움들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다(Crnic, Gaze, & Hoffman, 2005; Östberg & Hagekull, 2000).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의 죽음, 부모의 실업, 이혼 등과 같은 위협에 노출되어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았고(Martorell & Bugental, 2006; McLoyd, 1998), 이로 인하여 아이들의 부적응과 내면화된 문제 행동들이 나타났다(Kolak & Vernon-Feagans, 2008). 또한 누적적인 양육스트레스는 자연발생적 상황에서 육아행동과 부모-영아 양방향의 상호작용 질에 영향을 주어 사회·정서 발달 외에 언어,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Magill-Evans & Harrison, 2001; McLoyd, 1998).

Belsky(1984)의 육아 선택 결정요인 모형(Model of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에서 양육스트레스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육아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자원, 아동의 성격, 부모-자녀 관계를 둘러싼 폭넓은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양육지원과 스트레스에 대한 상황적인 자원들을 꼽았다(Copeland & Harbaugh, 2005). 이러한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양육지원을 들 수 있다(Lee, Kim, & Chung, 2009; Sohn, 2012).

양육지원의 하위변인 중 가정 내적으로 남편의 자녀 양육참여, 가정 외적으로는 사회적 지원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가정 내적 변인인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어머니가 취업 상태일 때 심리적 안정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Ahn, 2005),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역할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적이고 보완적

인 중요한 지지체계로 나타났다(Cho, 2004). 한편 Kim, Doh, Kim, & Rhee(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에 대한 지원과 양육에서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편들은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영아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보았다(Mcbride, Schoppe, & Rane, 2002). Lim, Lee, & Choi(2011a)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후속출산 증가를 돕는다고 하였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들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이것이 후속출산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내적 변인인 남편의 양육참여와 더불어 친구, 이웃, 친척, 가족 등의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가정 외적변인인 사회적 지원 역시 양육스트레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Norbeck, Lindsey, & Carrieri, 1981). 가정의 외부로부터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원은 긍정적인 육아 지표로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동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도움을 준다(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 또한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후속출산 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airney, Boyle, Offord, & Racine, 2003; Cohen & Wills, 1985; Kim & Kang, 2011; Lim, Lee, & Choi, 2011b; Moon & Min, 2012; Sohn, 2012). 하지만 이와

반대로, Raikes & Thompson (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모든 어머니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사회적 지원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후속출산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편의 양육협조,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후속출산계획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어머니의 정서나 심리적 특성의 하위변인으로 포함시켜 후속출산계획을 살펴보았을 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독립적으로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연구(PSKC)의 2차년도(2009년)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의 후속출산계획은 첫째아 양육경험에 의한 선택이 많이 작용한다는 선행연구(Lim, Lee, & Choi, 2011b)를 바탕으로 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및 후속출산계획 의도에 대한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또한 경로분석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둘

째아 후속출산 의도에 미치는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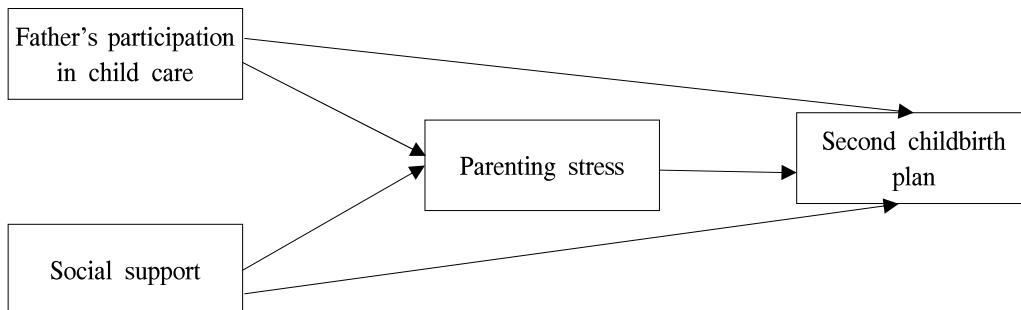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후속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1-2.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후속출산계획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후속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1. 사회적 지원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2-2.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후속출산계획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구조모형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Figure 1> Theoretical model of second childbirth plan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연구(PSKC)의 2차년도(2009년) 일반조사 대상인 1904명 중 아동패널대상이 첫째 자녀인 어머니 8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자녀의 평균 월령은 14.09개월로 남아 52.4%(465명), 여아 47.6%(4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0.89세(20-49세)로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이 47.1%(3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중인 어머니는 34.4%(301명)이었고, 후속출산계획 의도가 있는 어머니는 62.2%(552명)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3.33세(20-59세)로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이 42.7%(371명)로 가장 많았으며, 98.5%(865명)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Kang & Ch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아동패널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문항에서 대상 연령 아동 발달단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등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어머니대상 질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고, 총 4개 문항으로 가능 점수 범위는 4~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질문지의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Lee & Ok (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Cho, Suh, Shin, & Chung(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아동패널 조사를 위해 자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 패널 조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원은 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로부터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지지로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 4개의 하위영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영역의 문항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은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의 2문항, 도구적 지원은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교적 지원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의 4문항, 정보적 지원은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어머니대상 질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으로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고, 가능 점수 범위는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 질문지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socio-demographic features of the surveyed object ($N = 887$)

| Variable | Measures | Frequency(%) |
|--------------------------------------|---------------------------|--------------|
| Sex of first child | Male | 465 (52.4) |
| | Female | 422 (47.6) |
| Age of first child | 11 months | 2 (0.2) |
| | 12 months | 55 (6.2) |
| | 13 months | 206 (23.2) |
| | 14 months | 320 (36.1) |
| | 15 months | 214 (24.1) |
| | 16 months | 79 (8.9) |
| | 17 months | 11 (1.2) |
| Age of father | 20~29 years | 137 (15.2) |
| | 30~39 years | 668 (75.2) |
| | 40~49 years | 47 (4.7) |
| | 50~59 years | 1 (0.1) |
| Fa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or less | 216 (24.9) |
| | Vocational college | 200 (23.0) |
| | College | 371 (42.7) |
| | Graduate school and above | 80 (9.3) |
| Father's working status | Working | 865 (98.5) |
| | Non-working | 13 (1.5) |
| Age of mother | 20~29 years | 239 (34.9) |
| | 30~39 years | 565 (63.8) |
| | 40~49 years | 13 (1.4) |
|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or less | 235 (26.7) |
| | Vocational college | 228 (26.0) |
| | College | 336 (41.7) |
| | Graduate school and above | 49 (5.5) |
| Mother's working status | Working | 301 (34.4) |
| | Non-working | 574 (65.6) |
| Plans for the second child of mother | Have a plan | 552 (62.2) |
| | Does not have a plan | 335 (37.8) |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latent variables

| Variables | 1 | 2 | 3 | 4 |
|---|---------|---------|-------|---|
| 1.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 1 | | | |
| 2. Social support | .20*** | 1 | | |
| 3. Parenting stress | -.22*** | -.31*** | 1 | |
| 4. Second childbirth plan | .02 | .09** | -.10* | 1 |

* $p < .05$. ** $p < .01$. *** $p < .001$.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동 패널 조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im & Kang(1997)이 Abidin (1990b)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동패널 연구 시 예비조사를 통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고, 가능 점수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4) 후속출산계획

후속출산계획은 어머니가 응답하는 문항으로 내용은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이다. 문항의 응답은 로지스틱 더비변수로 이항분포화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

하였으며, 전체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변인들 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법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및 후속출산계획과의 관계

경로분석에 앞서 전체 잠재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Table 2).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사회적 지원($r = .20, p < .001$)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r = -.22, p < .001$)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후속출산계획($r = -.10, p < .05$)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r = -.31, p < .001$)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후속출산계획($r = .09, p < .01$)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고,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후속출산계획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후속출산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분석 :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및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계획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형적합도 지수는 TLI = .966, CFI = .977, SRMR = .026, RMSEA = .055으로 나타나 Hu & Bentler(1999)의 구조모형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beta = -.185, p < .001$)와 사회적 지원($\beta = -.249, p < .001$)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beta = -.086, p < .01$)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eta = -.081, p < .001$)는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후속출산계획 간에 유의한 경로가 발견되었다.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고, 그로 인해 후속출산계획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후속출산계획 간에 유의한 경로가 발견되었다. 사회적 지원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양육스트레스

<Table 3> 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 χ^2 | df | p | TLI | CFI | SRMR | RMSEA |
|----------|----|------|------|------|------|-------|
| 211.624 | 31 | .000 | .966 | .977 | .026 | .055 |

<Table 4> Significant pathways among variables in the mediating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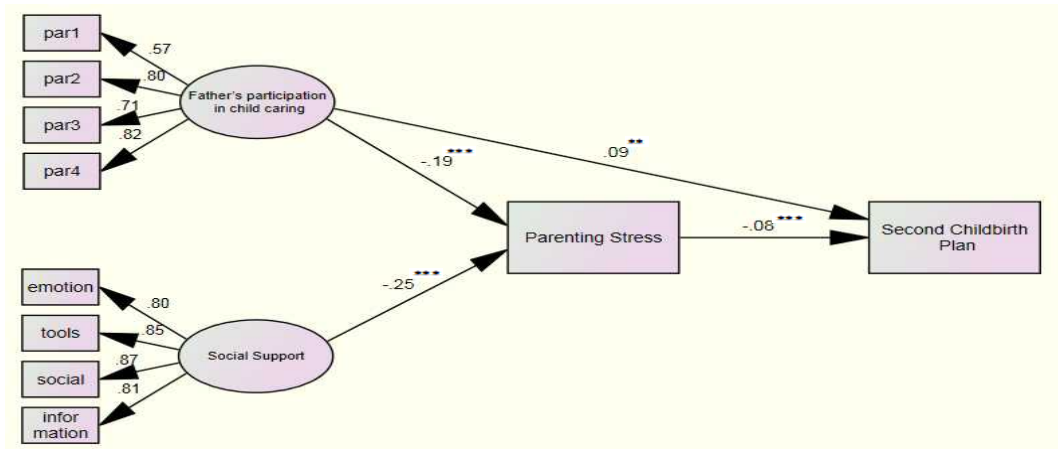
| Path | B | β | S.E. | t | p |
|--|-------|---------|------|---------|------|
|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 Parenting stress | -.146 | -.185 | .020 | -7.429 | .000 |
| Social support → Parenting stress | -.262 | -.249 | .026 | -10.257 | .000 |
|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 Second childbirth plan | .051 | .086 | .016 | 3.239 | .001 |
| Social support → Second childbirth plan | -.003 | -.004 | .020 | -.166 | .868 |
| Parenting stress → Second childbirth plan | -.061 | -.081 | .018 | -3.323 | .000 |

를 매개로 하여 후속출산계획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로는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완화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5).

구조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086, p < .01$)와 간접효과($\beta = .015, p < .01$)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사회적 지원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간접



** $p < .01$. *** $p < .001$.

<Figure 2> Verification on the theoretical model of second childbirth plan

<Table 5> Indirect and direct effect among variables by bootstrapping in the mediating model

| Path | Direct effects | Indirect effects | Total effects |
|--|----------------|------------------|---------------|
|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 Second childbirth plan | .086** | .015** | .101** |
| Social support → Second childbirth plan | -.004 | .020** | .016 |
| Parenting stress → Second childbirth plan | -.081*** | - | -.081** |
|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 Parenting stress | -.185*** | - | -.185** |
| Social support → Parenting stress | -.249*** | - | -.249** |

** $p < .01$. *** $p < .001$.

효과($\beta = .020, p < .01$)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beta = -.185, p < .001$)와 사회적 지원($\beta = -.249, p < .001$)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후속출산계획에 유의한 직접효과($\beta = -.081, p < .001$)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후속출산계획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확인되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후속출산계획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다.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후속출산계획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지원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과 후속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즉 사회적 지원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후속출산계획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출산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beta = .101, p <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적 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연구(PSKC)의 2차년도(2009년)』에 참여자 중 첫 자

녀가 있는 어머니 887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후속출산계획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고, 후속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노력이 둘째아출산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Cheon, 2005)와 적극적인 남편의 양육 협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둘째자녀를 계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ee, 2003; Kim, 2000; Park & Jang, 2003)와 일치한다. 또한 부부관련 특성 중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어머니의 역할부담을 덜고 이로 인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져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고(Ahn, 2005; Ahn, Kwon, & Park, 2012; Eom, 2011), 취업모의 경우 남편이 자녀와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 긴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연구결과(Cho, 2004; Kim & Cho, 2000; Kim & Kang, 2011)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후속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이를 매개로 하여 후속출산에 대한 의도가 향상될 것이라

고 해석된다. 또한 후속출산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 본인(70.8%) 다음으로 남편(21.4%)이라고 보고되어(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1),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후속출산계획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후속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원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후속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가족 외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과 단체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은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그로 인하여 후속출산계획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한 도움은 어머니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Lim, Lee, & Choi, 2011a)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은 더 낮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Solem, Christophersen, & Martinussen, 2011)와 일치한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네트워크에 참여 할수록 육아에 대한 만족감, 어머니의 반응 및 정서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낮은 스트레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Burchinal, Follmer, & Bryant, 1996; Cohen & Wills, 1985), 친정부도의 지원이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켜 후속출산계획에 대한 의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Kim, 2007)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사회적 지원 중 경제적인 지원은 자녀를 금전적 양육 부담감 해결에 도움을 준다. 경제적 지원은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였던 경제적 스트

레스가 두 자녀 양육 부담감으로 이어져 자녀수가 감소하는(Kim & Song, 2007; Del Boca, 2002; Yoon, 2005)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후속출산계획에 대한 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은 양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어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건강한 행동을 촉진시켜 주고,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여줌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 및 효능감을 향상시켜 어머니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출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사회적 지원 제도 및 장치, 아이들과 일상에서의 활동과 양육의 실제적인 부분들 및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양육지원이 더 유의하고 필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Bonds, Gondoli, Sturge-Apple, & Salem, 2002; Raikes & Thompson, 2005; Suchman & Luthar, 2001).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출산계획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분매개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원과 후속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를 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첫째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를 높이고 양육 실제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정책적으로 후속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육스트레

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성역할 분담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친인척, 친구의 도움 외에도 유아교육 및 아동 전문가들에 의해 형성된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과 어머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시설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베이비시터, 지역사회 돌보미 등의 다양한 타인양육의 국가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을 부모 개인만의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벗어나 국가와 지역사회 등 공공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사랑플랜(2009~2012)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사랑플랜을 바탕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책임 조화, 민간자원의 활동 등을 통하여 보육료 지원확대와 평가인증 활성화 등 기존 정책의 내실화를 가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등 민간의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여러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이러한 정책들이 보육의 질을 많이 향상시키고, 부모의 보육비 비용부담 완화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목표한 바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맞는지 평가하고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양육과 보육을 국가와 지역사회 등 공공의 책임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단기 플랜이 아니라, 국가 미래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부모와 사회, 국가가 함께 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연계된 사회적, 정책적 지원과 국·공립 보육시

설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연구(PSKC)의 2차년도(2009년)』에 참여한 첫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여 후속출산에 이르는 경로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낸 것에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지는 않았다. 비취업모, 즉 전업주부인 경우 시간의 대부분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자녀와 함께 하면서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양육 관련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직장 여성에 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Ahn & Park, 2002; Song, Song, & Kim, 2007). 반면 취업모는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의 이중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녀의 수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Park, 2004),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 등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측면(NICHHD, 1997)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 비취업모와는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이후에 계속 누적되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남편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 더 탐색해보고,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본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a).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0b).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hn, J., & Park, S. (2002).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 53-68.
- Ahn, S. (2005). The impact of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9*(4), 311-327.
- Ahn, S., Kwon, H., & Park, S. (2012). The impact of a husband's cooperation, mother-teacher partnerships, and other social support for on the mother's child rearing behaviors of in low-income familie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6*(4), 231-25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nds, D. D., Gondoli, D. M., Sturge-Apple, M. L., & Salem, L. N. (2002). Parenting stress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support and optimal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4), 409-435.
- Burchinal, M. R., Follmer, A., & Bryant, D. M. (1996). The relations of maternal social support and family structure with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 outcomes among African America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73-1083.
- Cairney, J., Boyle, M., Offord, D. R., & Racine, Y. (2003).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single and married moth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 Epidemiol, 38*, 442-449.
- Cheon, H. (2005). The characteristics of couples by their desires for a second chil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25-33.
- Cho, B., Suh, D., Shin, H., & Chung, H. (1998). The impact of coping resources on positive change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 13-21.
- Cho, B., & Hyun, O. (1994). Parental satisfaction of Korean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5), 97-108.
- Cho, K. (2004). The effects of employed mothers' working conditions, their husbands' support, and child care service on parenting role strai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9*(2), 161-178.
- Chung, S. (2012).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1), 31-52.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peland, D., & Harbaugh, B. L. (2005).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between married and single

- first time mothers at six to eight weeks after birth.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28, 139-152.
- Crnicek,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17-132.
- Del Boca, D. (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 in Ital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3), 549-573.
- Eom, J. W. (2011). Predictable variables for parenting stress in Korean mothers of infants : focu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ant's characteristics,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arit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Gerber, E. B. (2003). Predictors of teacher sensitive caregiving in center-based child c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u, L-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ang, H., & Cho, B. (1999). Dual-career parenting stress : effects of mother's values and support syst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 41-55.
- Kim, C. (2007). Parity specific approach to the plan of having an additional child.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0(2), 97-116.
- Kim, K., & Cho, B. (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1(4), 35-50.
- Kim, K., & Kang, H. (1997). Research :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K. H. (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zing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 and fat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Doh, H., Kim, S., & Rhee, S. (2010).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job characteristics,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5), 101-113.
- Kim, M., & Kang, M. (2011). The effects of double-income couples' gender role attitudes and recognition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8), 25-35.
- Kim, Y., & Song, Y. (2007). The relation between a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bout infants and parental str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4), 475-493.
- Koh, S. (2012). The reinforcement for policy to support child care work in family as the coping strategy for low fertility socie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8(1), 53-77.
- Kolak, A. M. & Vernon-Feagans, L. (2008). Family-level coparenting processes and child gender as

- moderators of family stress and toddler adjust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 617-638.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1). 2010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Research Report*, 2011-26.
- Kwak, K., & Kim, S. (2004). The differences in the touch patterns to mother's internal stat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7(1), 1-18.
- Lee, H. (2012).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dditional birth plan - focused on korean households with infant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0, 1-31.
- Lee, J. & Ok, S. (2001).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from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female earn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5), 49-63.
- Lee, J. (2003). Child rearing involvement, husband-wife relationship and growth as a parent =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3), 99-108
- Lee, J., Kim, W., & Chung, K. (2009). The study of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coping, parental behavior in partial caregiving-grandmothers comparing with caregiving-mothers.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2), 441-458.
- Lim, H., Lee, D., & Choi, H. (2011a). Using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to determine how a couple's characteristics, childbirth-related emotions and a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affect planning for seco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5), 183-202.
- Lim, H., Lee, D., & Choi, H. (2011b). An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of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on planning for seco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6), 167-189.
- Magill-Evans, J. & Harrison, M. J. (2001). Parent-child interactions, parenting stress, and developmental outcomes at 4 years. *Children's Health Care*, 30(2), 135-150.
- Martorell, G. A. & Bugental, D. B. (2006). Maternal variations in stress reactivity : implications for harsh parenting practices with very young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4), 641-647.
- Mcbride, B. A., Schoppe, S. J., & Rane, T. 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98-1011.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The long-term childcare plans titled 'Ai Sarang Plan(which means I love children)'.
 Moon, Y., & Min, H. (2012). The effects of infant's temperament, development,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1), 59-70.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 of infant and child care

-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9.
- Norbeck, J. S., Lindesy, A. M., & Carrieri, V. L. (1981). The development on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 264-269.
- Ö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e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 Park, B. H. (2012). Analysis on difference between awareness of pro-natal policies and additional childbirth intention. Unpublished ma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C., & Jang, Y. (2003). Related variables about maternal parenting stress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3), 31-44
- Park, S. S. (2004).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master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ungcheongbuk-do, Korea.
- Raikes, H. A., & Thompson, R. A. (2005).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3), 177-190.
- Respler-Herman, M., Mowder, B. A., Yasik, A. E., & Shamah, R. (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Family Studies*, 21, 190-198.
- Shin, K. (2010). Issues and dilemmas of population policy in korea : gender policy without gender perspective. *Issue in Feminism*, 10(1), 89-122.
- Sohn, S. (2012).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31-357.
- Solem, M. B., Christophersen, K. A., & Martinussen, M. (2011). Predicting parenting stress : children's behavioural problems and parent's coping.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0, 162-180.
- Song, M., Song, Y., & Kim, Y. (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elf-efficacy in early childhood mot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5), 165-183.
- Song, Y., Lee, J., & Kim, C.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of mothers with and without jobs : focusing on psychological and family role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185-206.
- Suchman, N. E., & Luthar, S. S. (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 285-315.
- Yoo, G. (2012). Work-family balance polici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8(1), 111-125.
- Yoon, S. (2005). An analysis on the fertility rate and women's employment of lower fertility househol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2), 159-167.

2012년 10월 31일 투고, 2012년 1월 28일 수정
2012년 2월 6일 채택